

자유로운 사고라는 신화

시타

자유로운 사고라는 신화 (크리스 호너)

--

크리스 호너 Chris Horner는 철학과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다. 그는 CUP에서 출간된 <철학을 통해 생각하기 Thinking Through Philosophy>의 공동 저자이다. 셰필드 대학교,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골드스미스 대학교, 로햄튼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한나 아렌트와 칸트의 반성적 판단론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 역사, 문학, 시각 예술, 음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풍경 사진에도 관심이 많다.

--

* 출처: 3 Quarks Daily / 2023년 4월 17일

<https://3quarksdaily.com/3quarksdaily/2023/04/the-myth-of-free-thinking.html#more-231412>

--

합리적 자율성의 환영

세상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이들이자 회의론자들인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속하는 imprisoning 믿음들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미지의 타인들로부터 얻은 것이다. 과학을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달이 조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 시공간 연속체나 양자역학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인가? 아니면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연구인가? 무엇이든 당신이 아는 것을 당신은 증거 없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당신이 대중과학서 독자일때도 그렇거나 대중과학서 독자일때 특히 그렇다. 이것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에게도 적용되는데, 과학자들은 보통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는 너무 방대하여 누구도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일련의 연구, 실험 및 응용 분야들, 즉 완전히 이해하려면 수년간의 연구와 훈련이 필요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분야들에 직면해 있다. 개인이 모든 과학 영역들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과학 이론들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 경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계의 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 결과는 동료 심사를 거친 저널에 게재되므로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건전하고,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결론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은폐하거나 마사지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고, 기관과 개인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그들의 대중화자들은 유행에 휩쓸릴 수 있다: 카오스 이론, 진화 심리학 등. 하지만 '자연 과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안해낸 자연 세계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비전문가인 우리는 그 평가를 하기 위해 과학자들 자신들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이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어떤 이론을 폐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학계의 집단적 지식과 전문성을 신뢰한다. 하지만 일반인도 과학적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론이 무엇인지, 또는 연구에서 '눈가림'(무작위)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 '기적의' 치료법 등에 대한 언론의 주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이점은 과학의 한계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 따라서 '과학주의' - 물리 과학들의 조사 방법들이 모든 탐구 분야들에 적합하다는 믿음 - 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90% 규칙

여기에는 합리적 자율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이론이 부적절하다고 버려지거나 반박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한때 지식이라고 생각했거나 (예를 들어, 플로지스톤의 존재) 물리학의 끈 이론이나 '다중 세계'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는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전개는 과학의 성공적인 진보의 일부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평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소 좁다. 나는 다음과 같은 대략적이고 준비된 기준을 제안하고 싶다: 해당 과학 분야의 과학자 중 약 90%가 어떤 것에 대해 동의하고 계속 동의한다면, 나는 그것을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시점에 따르면, 인간이 초래한 기후 온난화는 과학적 사실이다. 극히 일부만이 이의를 제기할 뿐이다.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데 있어 작은 변두리들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말자, 하지만 그것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자: 그것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과학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와 더불어 제시되기 전까지는 나는 90%를 고수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 과학들에 적용되는 것은 역사, 심리학 등 '인간 과학들'에도 적용된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합의되었다. 인간 과학들에서도 역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의존한다. 이성(정신)은 집단적 사업 enterprise이며, 우리는 그것의 대다수를 아웃소싱한다. 우리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들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학에 적합한 방법이 생물학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들과 그것들 밖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다. 비판적 사고는 전문성이나 관심사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인 실천이며, 독립적 확증의 중요성, 확증 편향, '선후, 그러므로 인과 post hoc, therefore propter hoc'과 같은 고전적인 사고 오류들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판적 성찰의 습관을 바탕으로 과학계에 의존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스스로 연구하는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자유 사상가는 UFO, '신세계 질서' 또는 큐어 난 Qanon에 대한 판타지들로 이어지는 속임수와 회의론의 이상한 조합에 가장 자주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선후, 그러므로 인과 -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오류

--

신, 기타등등.

종교는 어떤가? 종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하는 개개인들의 [합리적] 고찰과 관련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종교들과 그것들의 대변인들의 주장을 평가해야 하지만, 믿음과 믿지 않음 둘 다 사회적 규범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 400년 전 영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훨씬 적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시민의 대다수는 신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미국의 켄터키가 아닌 영국의 켄트에서 철학적 추론이 부상했기 때문이 아니다. 영국에서 더 발전한 것은 이성이라 아니라 세속화이다. 무신론자들의 수많은 전도지보다 자본주의와 소비 문화의 부식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힌두교보다 기독교의 인기가 높은 것도 각 종교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와 무관하다.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무엇을 믿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어떤 경우들에는 합리적인 논변과 신중한 생각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의식적으로 채택한 철학적 입장보다는 의례들과 의식들이 있는 전체 삶의 방식에 대한 믿음들이 더 중요하다.

삶의 한 형태로서의 이데올로기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 경제 시스템의 대안이 없다는 관념인 '자본주의 현실주의'의 광범위한 수용은 아담 스미스 대 칼 마르크스, 또는 하이에크 대 폴라니의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데올로기 자체는 믿음들과 의견들보다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일상적 행위들에 더 많이 의존한다. 상품 물신주의 역시 삶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시장 The Market'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나 의구심을 표출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들은 쇼를 계속 진행한다 [시장이 계속 돌아가게 한다]. 예를 들어, 현금 인출기가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 같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도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여느 때처럼 살아갈 것이다. 사건이 세미나보다 사람들을 더 급진적이 되게 한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을 빌리자면, 애초에 논리적으로 설득당해 무엇인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그 무엇인가로부터 빠져 나오게 할 수는 없다.